

##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행복감이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능력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Early Educator's Psychological Exhaustion and Happiness on Children's Adapting Ability in Early Education Settings\* \*\*

문은영<sup>1</sup> 오선진<sup>2</sup>

Moon, Eunyong<sup>1</sup> Oh, Sunjin<sup>2</sup>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arly educator's psychological exhaustion and happiness on adapting ability of children in early education settings. Two hundred ten early educators and six hundred thirty children were selected as subjects of this study and were requested to participate in a surve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arly educator's psychological exhaustion and happiness as well as children's adaptability on education facility, higher psychological exhaustion and lower happiness were related to lower children's adaptability on education facility. Second, as a result of comparing comparative impact that psychological exhaustion and happiness has on children's adaptability on education facility, psychological exhaustion of the teacher impacts negatively on children's adaptability on education facility and happiness of the teacher did not significantly impact children's adaptability on education facility.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be used as foundational data that helps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psychological exhaustion and happiness of the teacher and could be used to develop various programs that support teachers to recover from burnout and to increase happiness.

\* 본 논문은 2016년 한국보육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발표 논문을 확장한 것임.

\*\* 본 연구는 2015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1 제1저자

덕양구청직장어린이집 교사

#### 2 교신저자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객원교수

(e-mail: apriloh24@gmail.com)

■Key words Early Educator's Psychological Exhaustion, Happiness, Children's Adapting Ability in Early Education Settings

## I. 서론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사회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맞벌이 가족이 증가하고, 취학 전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실시 등 사회적 환경이 변함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과 같은 유아교육기관에 입소하는 영유아가 급격히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5년도 보육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어린이집수는 매년 증가하여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42,517개소로 2000년 대비 2.3배 증가했으며,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또한 2015년 12월 기준 1,452,813명으로 200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5). 또한, 유치원 수도 2010년 8,388개원에서 2015년 8,930개원으로 증가했으며,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의 수도 2010년 538,587명에서 2015년 682,553명으로 증가했다(교육통계연보, 2015). 이는 부모가 가정에서 유아들을 개별적으로 보호하고 양육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유아교육기관을 통해 양육을 받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만큼 유아교육에 있어 교육기관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유아교육기관은 유아가 가정을 벗어나 최초로 마주하게 되는 새로운 환경이다. 유아는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살면서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교사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규칙을 준수하며 적절하게 행동하고, 또래와의 원만한 관계 형성과 유지를 위해 다양한 경험을 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게 된다.

적응은 유아들이 일상생활에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는 포괄적인 개념이다(Lamb, 2012).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서 적응을 잘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집단생활에 흥미를 갖지 못하게 되며 기피현상을 보이게 되기도 한다. 또한, 학업성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Ladd, 1990). 반면, 유아교육기관에 적응을 잘하는 유아들은 자신이 속한 유아교육기관에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또래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한다(김선희, 2011). 일과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적절히 수정하고, 또래 및 교사와의 갈등상황에서도 순조롭고, 원만하게 해결해나가며 즐겁게 유아교육기관 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된다(지성애, 이규남, 박유영, 이규림, 천현미, 2006). 반대로 유아교육기관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유아들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는데(박문성, 2005) 신체적으로 공격성을 보일 뿐 아니라(이영, 김명순, 1999), 친사회성과 또래 간 적응, 유아교육기관의 일과적응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안선희, 2002).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 적응하는데 어떠한 변인들이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논의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크게 개인적 변인, 가정환경 변인, 유아교육기관의 환경 변인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주로 유아의 개인적인 특성과 가정환경 변인이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최근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유아 수의 증가와 유아들이 유아교육기관에서 보내는 하루 일과의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유아교육기관의 환경 변인이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유아교육기관의 인적 환경 변인인 교사는 유아를 보호하는 역할, 유아를 가르치는 역할, 유아의 발달을 관찰하는 역할 등 복합적인 역할들을 수행하며(김은옥, 2013),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손인숙, 송진숙, 2004), 유아들이 새롭고 낯선 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돕는다. 교사와 유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보면 교사-유아 관계에 친밀감이 높을수록 유아가 적응을 잘하며(김선희, 2011; 안선희, 2002), 교사-유아간의 상호작용이 높을수록(최선희, 2009) 유아는 유아교육기관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선희와 황혜정(2011)의 연구에서도 교사-유아간의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불안과 위축, 의존, 산만, 공격, 충동 및 전체적인 부적응 행동이 낮음을 보고하였고,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긍정적인 관계형

성은 유아의 적응을 돕지만 갈등적인 관계는 유아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주고, 문제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천향숙, 2010).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교사가 유아에게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교사의 역할이 갖는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는 유아교육 및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인적 자원인 교사의 역할과 자질이라는데 동의하고 있다(황해익, 탁정화, 홍성희, 2013).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곧 교사의 수준이 교육의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유아가 하루 일과의 반 이상을 함께 보내는 유아교사의 정서 상태를 만족시켜 준다면 유아는 좀 더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받고, 성장하며 유아교육기관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유아교사가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대우는 매우 낮고 열악하다. 또한, 유아교사는 직무수행 시 교육과정 운영을 비롯해 다양한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등 교사개인이 담당해야 하는 직무가 다양하고 많은 편이다. 그리고 유아교사는 교사의 역할 자체가 갖는 특성으로 인해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의 역할에 대해 여러 사람이 상충되는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에 직무수행 시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박은혜, 2009). 심리적 소진이란 교사가 과도한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으로 기력이 고갈된 상태가 되어 직무수행 능력이 떨어지고, 비인격화된 행동을 보이며 개인적 성취 결여를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한광현, 2005). Noble과 Macfarlane(2005)는 유치원 교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들에 비해 초임 첫 해 동안의 소진은 낮으나 2년차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들에 비해 더 심한 소진현상과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하였다.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은 신체적, 정서적으로 고갈을 주어 교사로서의 자긍심, 만족도, 사기를 떨어뜨리며 이는 결국 교육서비스의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최선경, 2011). 교육서비스 저하는 다시 말해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교사의 심리적 소진이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최근에는 영유아교사가 역량을 발휘하고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교사의 긍정적인 내적 특성인 행복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이경민, 최윤정, 이경애, 2012), 이를 통해 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반대개념이라 할 수 있는 유아의 행복감 또한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능력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변인일 것이라고 예측해볼 수 있다. 이유정(2013)은 어린이집 교사의 행복감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어린이집 교사의 행복감 점수가 높을수록 어린이집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낮다고 보고했다. 영아반 보육교사와 유아반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에 따른 직무만족도를 분석한 윤미정(2011)의 연구에서는 영아반 보육교사와 유아반 보육교사 모두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이 높아질수록 직무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사들이 힘든 현장 속에서 자신의 일에 보람을 찾고,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게 만드는 행복감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직장, 공동체, 국가, 사회에 무수한 보상을 준다.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더 좋아질 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창의성이 향상되고, 면역 체계가 개선되며, 인간관계도 더욱 좋아지고, 직장에서 생산성 또한 가속화된다고(정보미, 2012, 재인용). 곽희경(2011)은 유아교사의 행복감의 수준이 높을수록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수준이 높았다고 보고했다. 또한, 교사-유아 상호작용은 유아교육기관의 일과 속에서 일어나는 교사와 유아간의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유아는 놀이 참여(Endsley & Bradbard, 1981)와 사회적 유능감(Kontos & Wicoze-Herzog, 1997) 수준이 높아졌다. 교육의 질을 증진시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교사이며 교사가 심리적 소진을 적게 느끼고, 행복감을 크게 느꼈을 때 교사 개인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유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을 돕게 되고, 나아가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유아교육현장에서는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을 낮추고, 반대로 유아교사의 행복감을 높여 줄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은 교사의 행동, 정서와 관련이 있다는 이론적 주장이나, 몇몇 연구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심리적 소진이나 행복감과 같은 정서 상태가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결과는 미흡한 편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 및 행복감이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봄으로써 유아교육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유아들의 유아교육기관 생활과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강한 교사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행복감이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 행복감,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능력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교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 유아교사의 행복감,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능력 간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 행복감,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능력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과 행복감이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국·공립 어린이집 7개소, 직장어린이집 8개소,

민간어린이집 1개소와 국·공립유치원 1개소, 사립 유치원 16개소에 근무하는 담임교사 210명과 그 교사가 담임하고 있는 만 3세, 만 4세, 만 5세 유아 630명으로(연구자가 한 학급당 유아 3명씩 무선 표집하여 선정), 담임교사 한 명이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 행복감,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 능력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 2. 연구도구

### 1)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을 측정하기 위하여 강학구(1996)가 번안하여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초·중등교사를 대상으로 사용한 Maslach와 Jackson(1981)의 소진척도(Maslach Burnout Inventory: MBI)를 ‘학생’이라는 용어 대신 ‘유아’로 수정한 권나연(2011)의 질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강학구(1996)가 사용한 대상은 초·중등교사이지만 MBI척도가 연구대상의 소진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국내외 연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도구이며 유아교사의 소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주로 사용되는 도구여서 이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심리적 소진에 대해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성취감 박탈이라는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서적 고갈 관련 8문항, 비인간화 관련 5문항, 성취감 박탈 관련 문항은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정서적 고갈 .86, 비인간화 .69, 성취감 박탈 .77이며 심리적 소진 측정도구 전체의 Cronbach's  $\alpha$  값은 .89로 높게 나타났다.

### 2) 유아교사의 행복감

유아교사가 인식하는 행복감을 알아보기 위하여 박유진(2012)이 사용한 도구인 ‘단축형 행복 척도(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COMOSWB)’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Diener(1984)가 행복의 인지적 요소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주관적 삶의 요소(Subjective Well-Being: S WB)’를 기본으로 서은국과 구재선(2011)이 한국인의 정서를 반영하여 개발한 도구이다. 행복감 척도는 삶의 만족, 긍정 정서, 부정 정서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복감 척도는 삶의 만족, 긍정 정서, 부정 정서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Likert 7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7점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행복감 전체 점수는 삶의 만족 점수와 정적 정서 점수의 합에 부정 정서의 점수를 뺀 총점으로 제시하였으며, 각 하위요인별 점수는 평균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교사가 인식하는 행복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삶의 만족 .89, 긍정정서 .86, 부정정서 .83이며 행복감 측정도구 전체의 Cronbach's  $\alpha$  값은 .90으로 높게 나타났다.

### 3)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능력

유아교육기관 적응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Jewsuwan, Luster 그리고 Kostelik(1993)이 개발한 유

치원 적응 평가(Preschool Adjustment Question: PAQ)를 김미화(2009)가 번안한 것을 사용한 채경화(2013)의 유치원 적응 평가 질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8문항으로 친사회적 행동 5문항, 긍정적 정서 4문항, 또래 간 적응 6문항, 자아강도 6문항, 하루일과 적응 7문항의 5개 하위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유치원 적응 평가의 평정 방법은 각 문항을 읽고, 유아의 행동과 일치되는 정도에 따라 교사가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각 문항은 5단계 평정 척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가 교육기관에서 적응을 잘하는 것을 의미하며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도 척도의 하위범주별 신뢰도는 친사회적 행동 .88, 긍정적 정서 .76, 또래 간 적응 .90, 자아강도 .85, 하루일과 적응 .92이며 교육기관 적응능력 전체 총점은 .96으로 높게 나타났다.

### 3. 연구절차

본 조사는 2015년 10월 5일부터 2015년 10월 22일까지 서울, 경기 지역에 소재한 유아교육기관에 연구에 대한 안내를 하여 연구 참여에 동의한 교사를 중심으로 그 교사가 담당하는 유아의 가정에 동의서를 보냈다.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유아들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한 학급당 유아 3명씩을 임의로 선정하였다. 만 3-5세 유아를 담당하는 교사 230명에게 교사용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그 교사가 담당하는 유아 중 연구에 동의한 유아 3명을 연구자가 무선 표집하여 선정하였고 유아용 설문지 690부를 배부하였다. 이후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질문지를 수거하였다. 배부된 질문지 중에서 217부(94.4%)가 회수되어 그 중 무응답이 있거나 성실하게 답하지 않은 질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교사용 질문지 210부와 유아용 질문지 630부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행복감이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한 통계 분석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된 설문 자료는 연구대상 교사와 유아의 배경변인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행복감,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능력 등 주요 연구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셋째, 연구대상 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라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행복감,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유아교사가 선정한 3명의 유아의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라 *t*검정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행복감,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능력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행복감이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하여 유아교사가 선정한 3명의 유아의 평균점수를 이용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행복감,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능력의 일반적인 경향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행복감,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능력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표 1>,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먼저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 총점의 평균은 전체 1~5점까지 가능 범위에서 2.46( $SD = .48$ )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고갈의 평균은 2.79( $SD = .70$ ), 성취감 박탈의 평균은 2.39( $SD = .44$ ), 비인간화의 평균은 2.06( $SD = .58$ ) 등의 영역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유아교사의 행복감 총점의 평균은 -5~13점까지 가능 범위에서 6.38( $SD = 2.66$ )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은 1~7점까지 가능 범위에서 삶의 만족 평균이 5.02( $SD = .99$ )로 높은 편이었고, 다음으로 긍정 정서의 평균은 4.81( $SD = .98$ )이었으며, 부정 정서의 평균은 3.45( $SD = 1.19$ )로 높지 않았다.

<표 1>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행복감의 일반적인 경향 (N = 210)

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	정서적 고갈	1.38	4.75	2.79	.70
	비인간화	1.00	3.60	2.06	.58
	성취감 박탈	1.25	3.50	2.39	.44
	총점	1.38	3.76	2.46	.48
유아교사의 행복감	삶의 만족(a)	2.00	7.00	5.02	.99
	긍정 정서(b)	1.67	7.00	4.81	.98
	부정 정서(c)	1.00	7.00	3.45	1.19
	총점(a+b-c)	-2.33	12.67	6.38	2.66

<표 2>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능력의 일반적인 경향 (N = 630)

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능력	친사회적 행동	1.00	5.00	3.66	.80
	긍정적 정서	1.25	5.00	3.77	.74
	또래 간 적응	1.00	5.00	3.70	.79
	자아강도	1.00	5.00	3.66	.73
	하루일과 적응	1.14	5.00	3.81	.80
총점	1.54	5.00	3.72	.65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능력 총점의 평균은 1~5점까지 가능 범위에서 3.72( $SD = .65$ )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 보면 하루일과 적응의 평균은 3.81( $SD = .80$ ), 긍정적 정서의 평균은 3.77( $SD = .74$ ), 또래 간 적응의 평균은 3.70( $SD = .79$ ), 친사회적 행동의 평균은 3.66( $SD = .80$ ), 자아강도의 평균은 3.66( $SD = .73$ )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2. 유아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행복감,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능력 차이

연구대상 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라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행복감,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유아교사가 선정한 3명의 유아의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라  $t$ 검정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아교사의 교사경력에 따라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행복감을 살펴보면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 하위영역에서는 성취감 박탈 영역에서 교사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F = 8.78, p < .001$ ), 경력이 3년 미만 교사( $M = 2.56, SD = .43$ )가 3년 이상~5년 미만( $M = 2.39, SD = .46$ )과 5년 이상 교사( $M = 2.27, SD = .41$ )에 비해 성취감 박탈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사의 행복감을 살펴보면, 행복감 총점은 교직경력이 5년 이상 교사( $M = 6.79, SD = 2.77$ ), 3년~5년 미만

<표 3> 유아교사의 교사경력에 따른 주요 연구변인들의 차이 (N = 210)

변인	3년 미만 (n = 67)	3년~5년 미만 (n = 54)	5년 이상 (n = 89)	F	Duncan test	
	a	b	c			
	M(SD)	M(SD)	M(SD)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	정서적 고갈	2.83( .63)	2.73( .63)	2.79( .79)	.27	
	비인간화	2.18( .54)	1.94( .59)	2.03( .60)	2.52	
	성취감 박탈	2.56( .43)	2.39( .46)	2.27( .41)	8.78***	b < a, c < a
	총점	2.57( .44)	2.41( .48)	2.41( .49)	2.52	
유아교사의 행복감	삶의 만족	4.89(1.01)	5.04( .91)	5.10(1.02)	.93	
	긍정 정서	4.51( .96)	4.85( .89)	5.01(1.01)	5.20**	a < b, a < c
	부정 정서	3.70(1.22)	3.34(1.07)	3.32(1.23)	2.29	
	총점	5.69(2.62)	6.54(2.39)	6.79(2.77)	3.48*	a < c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능력	친사회적 행동	3.64( .47)	3.71( .53)	3.66( .44)	.33	
	긍정적 정서	3.77( .49)	3.82( .54)	3.74( .41)	.55	
	또래 간 적응	3.71( .48)	3.76( .57)	3.64( .47)	1.00	
	자아강도	3.67( .47)	3.66( .55)	3.66( .45)	.02	
	하루일과 적응	3.85( .46)	3.80( .58)	3.78( .51)	.39	
	총점	3.73( .40)	3.75( .50)	3.70( .39)	.31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4> 유아교사의 학력에 따른 주요 연구변인들의 차이 (N = 210)

변인	보육교사 교육원 /전문대졸 (n = 134)	4년제 대졸 이상 (n = 76)	t	
	M(SD)	M(SD)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	정서적 고갈	2.81( .71)	2.75( .69)	.56
	비인간화	2.11( .58)	1.96( .57)	1.75
	성취감 박탈	2.45( .44)	2.29( .43)	2.45*
	총점	2.50( .49)	2.39( .45)	1.67
유아교사의 행복감	삶의 만족	4.97(1.00)	5.10( .96)	-.89
	긍정 정서	4.70(1.04)	4.99( .86)	-2.02*
	부정 정서	3.55(1.17)	3.26(1.21)	1.72
	총점	6.12(2.69)	6.82(2.57)	-1.85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능력	친사회적 행동	3.65( .48)	3.68( .47)	-.45
	긍정적 정서	3.78( .48)	3.76( .45)	.27
	또래 간 적응	3.70( .48)	3.68( .54)	.22
	자아강도	3.66( .49)	3.66( .46)	.02
	하루일과 적응	3.81( .50)	3.81( .54)	-.07
	총점	3.72( .42)	3.72( .44)	-.01

\* $p < .05$ .

( $M = 6.54, SD = 2.39$ ) 3년 미만 교사( $M = 5.69, SD = 2.26$ ) 등의 교사 순으로 높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 = 3.48, p < .05$ ).

유아교사의 학력에 따라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행복감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 하위영역에서는 성취감 박탈( $t = 2.45, p < .05$ ) 영역에서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보육교사 교육원과 전문대졸 교사( $M = 2.45, SD = .44$ )가 4년제 대졸 이상 교사( $M = 2.29, SD = .43$ )에 비해 성취감 박탈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사의 행복감을 살펴보면, 행복감 총점은 교사의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유아교사의 행복감 하위영역에서는 긍정 정서( $t = -2.02, p < .05$ )영역에서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4년제 대졸 이상 교사( $M = 4.99, SD = .86$ )가 보육교사 교육원과 전문대졸 교사( $M = 4.70, SD = 1.04$ )에 비해 긍정적 정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사의 하루 근무시간에 따라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행복감,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능력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을 살펴보면, 심리적 소진 총점은 근무시간이 9시간 초과~10시간( $M = 2.54, SD = .50$ ), 10시간 초과( $M = 2.49, SD = .46$ ), 9시간 이하( $M = 2.35, SD = .46$ ) 교사의 순으로 높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 = 3.21, p < .001$ ). 유아교사의 행복감의 경우, 행복감 총점은 9시간 이하( $M = 7.07, SD = 2.65$ ), 10시간 초과( $M = 6.06, SD = 2.12$ ), 9시간 초과~10시간( $M = 6.02, SD = 2.88$ ) 등의 근무교사에 순으로 높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F = 3.60, p < .05$ ).

<표 5> 유아교사의 근무시간에 따른 주요 연구변인들의 차이 (N = 210)

변인		9시간 이하 (n = 69)	9시간 초과- 10시간 (n = 88)	10시간 초과 (n = 53)	F	Duncan test
		a	b	c		
		M(SD)	M(SD)	M(SD)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	정서적 고갈	2.59( .69)	2.88( .74)	2.89( .59)	4.12*	a < b, a < c
	비인간화	1.97( .56)	2.15( .57)	2.03( .61)	1.96	
	성취감 박탈	2.34( .40)	2.44( .43)	2.37( .50)	1.12	
	총점	2.35( .46)	2.54( .50)	2.49( .46)	3.21*	a < b
유아교사의 행복감	삶의 만족	5.15(1.00)	5.00(1.04)	4.87( .87)	1.20	
	긍정 정서	4.97( .97)	4.73(1.08)	4.71( .80)	1.46	
	부정 정서	3.05(1.15)	3.71(1.27)	3.53( .99)	6.40**	a < b, a < c
	총점	7.07(2.65)	6.02(2.88)	6.06(2.12)	3.60*	b < a, c < a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능력	친사회적 행동	3.62( .43)	3.66( .51)	3.73( .47)	.86	
	긍정적 정서	3.71( .44)	3.78( .50)	3.83( .45)	1.06	
	또래 간 적응	3.62( .49)	3.71( .50)	3.76( .51)	1.19	
	자아강도	3.55( .48)	3.74( .46)	3.68( .49)	3.14*	a < b
	하루일과 적응	3.75( .44)	3.78( .57)	3.93( .51)	2.05	
	총점	3.65( .40)	3.73( .44)	3.79( .43)	1.69	

\* $p < .05$ , \*\* $p < .01$

유아교사의 1인당 담당 유아 수에 따라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행복감,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능력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을 살펴보면, 심리적 소진 총점은 교사 1인당 담당 유아 수가 11-20명인 교사( $M = 2.53$ ,  $SD = .47$ )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0명 이하 담당 교사( $M = 2.37$ ,  $SD = .48$ ), 21명 이상 담당 교사( $M = 2.37$ ,  $SD = .49$ ),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 3.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행복감,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능력 간의 관계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행복감 총점 간에는 높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 $r = -.70$ ,  $p < .01$ )을 보여, 심리적 소진이 높을수록 행복감은 낮아지는 부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 하위영역과 행복감 총점 간에도 정서적 고갈( $r = -.66$ ,  $p < .001$ ), 비인간화( $r = -.48$ ,  $p < .001$ ), 성취감 박탈( $r = -.53$ ,  $p < .01$ ) 영역 모두 행복감 총점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 총점과 행복감 하위영역 간에는 심리적 소진 총점은 삶의 만족( $r = -.51$ ,  $p < .001$ )과 긍정 정서( $r = -.62$ ,  $p < .001$ )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부정 정서와는 정적 상관( $r = .62$ ,  $p < .001$ )을

〈표 6〉 유아교사의 담당 유아 수에 따른 주요 연구변인들의 차이 (N = 210)

변인	10명 이하 (n=30) a	11-20명 (n=115) b	21명 이상 (n=65)	F	Duncan test	
	M(SD)	M(SD)	M(SD)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	정서적 고갈	2.64( .69)	2.91( .71)	2.64( .66)	3.97*	-
	비인간화	1.90( .61)	2.16( .58)	1.94( .54)	4.37*	a < b
	성취감 박탈	2.43( .44)	2.39( .44)	2.38( .46)	.18	
	총점	2.38( .48)	2.53( .47)	2.37( .49)	2.83	
유아교사의 행복감	삶의 만족	4.89(1.00)	5.00(1.05)	5.11( .86)	.55	
	긍정 정서	4.76( .99)	4.69(1.01)	5.04( .91)	2.66	
	부정 정서	3.30(1.24)	3.57(1.16)	3.29(1.22)	1.47	
	총점	6.34(2.92)	6.11(2.58)	6.86(2.66)	1.63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능력	친사회적 행동	3.69( .41)	3.63( .49)	3.72( .48)	.87	
	긍정적 정서	3.67( .47)	3.76( .47)	3.83( .46)	1.29	
	또래 간 적응	3.67( .47)	3.67( .51)	3.75( .50)	.66	
	자아강도	3.52( .46)	3.67( .49)	3.72( .47)	1.82	
	하루일과 적응	3.77( .43)	3.78( .54)	3.87( .51)	.74	
총점	3.67( .37)	3.70( .44)	3.78( .43)	1.03		

\* $p < .05$ .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행복감 하위영역 간에도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성취감 박탈 등의 심리적 소진 하위영역은 삶의 만족, 긍정 정서의 행복감 영역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부정 정서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능력 총점 간에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 $r = -.32, p < .010$ )을 보여,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이 높을수록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능력은 낮아지는 부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 하위영역과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능력 총점 간에도 유아교사의 정서적 고갈( $r = -.24, p < .001$ ), 비인간화( $r = -.21, p < .01$ ), 성취감 박탈( $r = -.35, p < .01$ ) 영역 모두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능력 총점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 총점은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능력 하위영역 중 친사회적 행동( $r = -.31, p < .001$ ), 긍정적 정서( $r = -.30, p < .001$ ), 또래 간 적응( $r = -.31, p < .001$ ), 하루일과 적응( $r = -.36, p < .001$ ) 등의 영역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자아강도 영역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능력 하위영역 간에도 정서적 고갈과 자아강도, 비인간화와 자아강도 영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들 간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행복감과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유아교사

의 행복감과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능력 총점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 $r = .24, p < .001$ )을 보여, 유아교사가 행복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능력은 높아지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아교사의 행복감 하위영역과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능력 총점 간에는 유아교사의 삶의 만족( $r = .19, p < .01$ ), 긍정 정서( $r = .28, p < .001$ )는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능력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부정 정서는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능력 유의미한 부적 상관( $r = -.14, p < .05$ )을 보였다. 유아교사의 행복감 총점과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능력 하위영역 간에도 유아교사의 행복감 총점은 친사회적 행동( $r = .22, p < .01$ ), 긍정적 정서( $r = .27, p < .001$ ), 또래 간 적응( $r = .23, p < .01$ ), 하루일과 적응( $r = .24, p < .001$ ) 등의 영역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자아강도 영역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사의 행복감 하위영역과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능력 하위영역 간에도 삶의 만족과, 긍정 정서 등의 행복감 하위영역은 삶의 만족과 자아강도와 상관을 제외하고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능력 하위영역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부정 정서는 친사회적 행동( $r = -.14, p < .05$ ), 긍정적 정서( $r = -.18, p < .01$ ), 하루일과 적응( $r = -.15, p < .05$ )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 4.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행복감이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능력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행복감이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먼저 독립변인인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행복감 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VIF는 모두 2이하로 낮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행복감은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능력을 10.0%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 = 11.82, p < .001$ ).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이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능력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 $\beta = -.30, p < .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아교사의 행복감은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능력에 의미 있는 영향은 미치지 않았다. 즉, 유아의 교사의 긍정적인 정서인 행복감보다는 부정적인 정서인 심리적 소진이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 정서적 소진을 많이 겪고 있는 교사들이 지도하는 유아들이 교육기관 적응능력이 낮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행복감이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능력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b	$\beta$	t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	-.26	-.30	-3.22**
유아교사의 행복감	.01	.04	.38
	$F = 11.82^{***}$	$R^2 = .10$	

\*\*  $p < .01$ , \*\*\*  $p < .001$ .

## IV. 논의 및 결론

첫째,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행복감,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능력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본 결과,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은 정서적 고갈의 평균점수가 성취감 박탈, 비인간화의 평균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유아교사의 행복감은 삶의 만족의 평균점수가 긍정 정서의 평균점수보다 높았다. 이는 보육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자기장학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보육교사의 전반적인 심리적 소진을 살펴본 이유주(2014)의 연구에서 보육교사의 전반적인 심리적 소진을 살펴본 결과 정서적 고갈, 개인적 성취감 감소, 비인간화 순으로 높았다고 보고한 내용과 일치하며, 공립유치원 교사들의 심리적 소진 중 정서고갈 평균점수가 가장 높다고 보고한 장주혜(2008)의 연구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둘째, 유아교사의 경력에 따른 심리적 소진의 결과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심리적 소진의 하위영역 중 성취감 박탈 영역에서는 경력이 3년 미만인 교사가 3년~5년 미만과 5년 이상의 교사에 비해 성취감 박탈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력 1년 이하의 교사들이 성취감 결여를 높게 자각하고 있다고 보고한 이수련과 이정화(2010)의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경력이 낮을수록 심리적 소진이 증가하며 특히, 심리적 소진의 하위영역 중 정서적 고갈과 성취감 결여를 많이 경험한다는 안선희와 김지은(2007)의 연구결과와 비슷하다. 이 결과는 경력 1년 이하의 교사들이 처음으로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주요 업무인 유아를 교육하고 지도하는 일 외에도 학부모 면담, 반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 동료 교사들과의 대인관계 등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하는 일이 많아 다소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소진도 높아지는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유아교사의 근무시간에 따른 주요 연구변인들의 차이를 살펴보면 심리적 소진과 행복감 모두 근무시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은 9시간 초과~10시간 근무하는 교사와 10시간 초과 근무하는 교사들이 9시간 이하 근무하는 교사들보다 심리적 소진을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소진 하위영역에서도 10시간 초과 근무하는 교사와 9시간 초과~10시간 근무하는 교사가 9시간 이하 근무교사보다 정서적 고갈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무시간이 긴 교사들이 정서적 고갈을 자주 느껴 소진 증상도 자주 경험한다는 최윤이와 심숙영(1999)의 연구와 일치하며, 근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져 교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그 때문에 소진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한 유경숙과 김수옥(2004)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행복감을 살펴보면 9시간 이하 근무하는 교사가 10시간 초과 근무하는 교사와 9시간~10시간 근무하는 교사보다 높은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감의 하위영역에서도 9시간 초과~10시간 근무하는 교사와 10시간 초과 근무하는 교사가 9시간 이하 근무하는 교사에 비해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에 따른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한 이미란(2010)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그러나, 유아교사의 근무시간에 따른 행복감은 8시간~10시간 미만 근무교사가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교사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는 장연화(2014)의 연구와 교사의 직무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8시간 근무하는 교사의 직무만족도가 가장 높고, 12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교사가 가장 낮은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한 박선화(2012)의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유아교사의 근무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교수자료준비나 유아들과의 교육활동이라는 기본적인 교사의 업무 외에도 각종 행정업무와 기타 잡무 등을 함께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도한 근무시간은 교사로 하여금 만성적인 피로를 느끼게 하여 행복감을 감소시키고, 심리적 소진을 심화시켜 유아교육기관에서 함께 생활하는 유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교사의 소진을 경감시키고,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사무, 행정업무 등의 교수활동 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배치해 업무체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근무시간 조정을 비롯한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교사의 처우개선으로 복지수준 향상 등 더 나은 근무여건 제공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방안과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행복감,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능력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행복감 간에는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이 높을수록 행복감은 낮아지는 부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능력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이 높을수록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능력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진된 교사는 유아와의 관계에서 민감성이 떨어지고, 훈육을 할 때에도 강압적이고 비논리적인 훈육방식을 자주 사용하게 되어 유아로 하여금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게 하며 결과적으로 부적응행동을 보이게 할 수 있다고 보고한 차지연(2013)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박선미(2013)는 유아교사의 정서조절능력과 유아-교사 관계, 소진감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했는데 유아교사의 소진감은 유아-교사의 친밀감과 유아-교사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갈등관계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윤수정과 신유림(2008)은 교사-유아 관계에서의 친밀감은 유치원 일과 적응, 또래 간 적응과 같은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했고, 안선희(2002)는 온정적인 관계를 형성한 유아가 적응을 더 잘하며 갈등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유아는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박선미(2013)의 연구와 연결하여 보면 교사의 소진이 교사와 유아의 관계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유아의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예측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아가 긍정적으로 유아교육기관에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에 관심을 가지고 소진을 해소하기 위한 정서 프로그램 운영 등의 방법으로 유아교사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유아교사의 행복감과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능력 간에는 유아교사의 행복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능력은 높아지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사의 소진과 정서노동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소진의 하위영역인 신체·정서적 고갈, 직업적 회의, 직무 환경적 불만족, 무능감이 행복감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는 연구와 같은 결과이며(차정주, 이효림, 2015), 직무에 만족하면 소진이 적고, 직무스트레스가 많으면 대체로 소진이 높다고 보고한 최선경(2011)의 연구와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다우리(2013)는 교사의 행복감이 높을수록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높다고 하였고, 채경화(2013)는 교사-유아의 상호작용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는 교육기관에 안정적으로 적응한다고 하였다. 이 보고들을 연결해보면 결론적으로 유아교사의 행복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능력이 높

아진다는 위의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은주(2005)는 행복감이 높은 유아일수록 유아교육기관에 적응을 잘하게 되는데 유아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인 교사와의 관계가 유아의 유치원 적응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유아의 행복감에도 영향을 주어 유아교육기관에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유아교사가 경험하는 행복감이 유아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유아교사의 행복감을 높여주기 위하여 행복 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거나, 여유로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해주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행복감이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해본 결과,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이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아교사의 행복감은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김수연(2012)은 자신의 연구에서 유아교사의 소진이 높아질수록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은 낮아지고, 유아의 정서조절 전략 중 공격적 전략과 회피적 전략은 높아지며 반대로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유아 정서조절 전략 중 공격적 전략과 회피적 전략은 낮아진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박윤미(2014)는 교사-유아 상호작용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에서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일수록 유아가 교육기관에 적응을 잘 한다고 보고했다. 두 연구의 결과는 연결하면 유아교사의 소진이 결론적으로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정리해보면 소진을 경험하고 있는 유아교사가 교육현장에 남아서 계속 유아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이나 유아교육현장을 떠나는 것 모두 유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을 낮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간구되는데 먼저 국가적 차원에서 심리적 소진을 감소시키는데 큰 영향을 주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유아교사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사회적지지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유은경(2012)의 연구에 따르면 직장 내에서 충분한 지지를 받을 때 보육교사의 심리적 소진이 낮다고 보고했다. 이 결과는 직장 내에서 동료교사들과 서로 지지해주며 유대감을 가지고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교사 멘토링, 공동체 강화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세 번째로 유아교사의 학력이 성취감 박탈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 유아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사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교사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제한점을 근거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한다. 먼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기관이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지역적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비율이 골고루 이루어지지 않고 편중된 경향이 있어 연구 결과를 확대하여 해석하거나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다양한 지역에서 체계적으로 대상기관을 표집 하여 연구대상의 대표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한 학급당 유아 3명씩을 무선 표집하

여 교사에게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능력에 대해 측정하도록 했는데 연구자가 유아 3명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방법적인 면에서 객관성, 형평성 등에 있어 한계점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교사와 부모님이 각각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유아관찰, 또래 평정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객관성을 높인 연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시사점과 의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사가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검증함으로써 유아가 안정적으로 교육기관에 적응함에 있어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둘째,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이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검증함으로써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 주었고, 그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유아교사의 행복감과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증명함으로써 유아교사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행복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거나, 근무시간 조절, 처우 개선과 같은 근무환경의 변화를 위해 국가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 참고문헌

- 강학구 (1996). 특수학교 교사와 일반학교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특징과 요인간의 관계성 분석.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곽희경 (2011). 유아교사의 행복감 및 자아정체감과 교사효능감,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관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교육부 (2015). **2015년 교육통계연보**. [http://kess.kedi.re.kr/publ/publFile/pdfjs?survSeq=2015&menuSeq=3894&publSeq=2&menuCd=65929&itemCode=02&menuId=1\\_2\\_1&language=en](http://kess.kedi.re.kr/publ/publFile/pdfjs?survSeq=2015&menuSeq=3894&publSeq=2&menuCd=65929&itemCode=02&menuId=1_2_1&language=en)에서 2015년 12월 1일 인출
- 권나연 (2011). 유치원교사의 직무환경의 위험요소와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에서 교사효능감의 역할.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화 (2009). 유아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태도가 유치원적응에 미치는 영향. 광주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희 (2011). 어머니의 역할만족도 및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이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연 (2012). 유아의 정서조절 전략 관련 변인들에 대한 구조모형분석: 교사의 사회적 지지, 정서노동, 소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 석사학위논문.
- 김은옥 (2013). 유아 교사의 행복감, 직무만족도와 교사-유아 간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미 (2013). 유아교사의 정서조절능력, 유아-교사 관계, 소진감 간의 관계. **한국아동교육학회**,

22(1), 21-32.

- 박선화 (2012). 유아교사의 직무만족도와 교사효능감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문성 (2005). 유아기 아동의 부적응 실태 및 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유진 (2012).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안녕감과 자아탄력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윤미 (2014). 만 3세 유아반 교사-유아 상호작용과 유아의 놀이성이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혜 (2009). **유아교사론** (제3판). 서울: 창지사.
- 보건복지부 (2015). **2015 보육통계**. [http://www.mohw.go.kr/front\\_new/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30820&page=1](http://www.mohw.go.kr/front_new/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30820&page=1)에서 2015년 12월 1일에 인출
- 서은국, 구재선 (2011). 단축형 행복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1), 96-114.
- 손인숙, 송진숙 (2004). 부모와 교사간의 연계교육 및 유아-교사간의 상호작용의 질에 따른 유아의 적응에 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회**, 39, 111-128.
- 안선희 (2002). 유아의 유치원 초기적응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 9(1), 201-219.
- 안선희 (2002). 유아의 어머니, 교사, 또래와의 관계와 유치원 적응. **미래유아교육학회**, 9(3), 163-180.
- 안선희, 김지은 (2007). 영아 및 유아 보육교사의 개인적 특성, 근무여건, 사회적지지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12(5), 147-164.
- 윤미정 (2011).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에 따른 직무만족도 연구: 영유아 담당연령에 따라.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민, 최윤정, 이경애 (2012). 유아교사의 행복과 역할수행능력과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32(6), 509-523.
- 이미란 (2010). 영유아교사의 행복감과 교사헌신의 관계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영, 김명순 (1999). 유아교육기관 유형에 따른 교사 또래관계 및 아동 발달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 37(8), 103-115.
- 이유정 (2013). 어린이집 교사의 적성과 행복감이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주 (2005). 유치원교사의 자기효능감, 직무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주 (2014). 보육교사의 심리적소진이 자기장학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련, 이정화 (2010). 유치원 교사의 경력에 따른 소진과 자아탄력성에 관한 연구. **한국유아교**

**육학회, 30(6), 51-65.**

- 유경숙, 김수옥 (2004). 유아교사의 소진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교육학회, 13(2), 293-302.**
- 유은경 (2012).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사회적지지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수정, 신유림 (2008). 교사-유아 관계와 유아의 사회적 행동특성 및 유아교육기관 적응관련성: 유아 및 교사지각의 비교. **유아교육연구, 29(5), 5-20.**
- 정다우리 (2013). 어린이집 교사의 행복감, 관심사 및 교사 인성과 교사-유아 상호작용과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81, 49-70.**
- 정보미 (2012). 대학생의 행복감 수준에 따른 행복증진활동 유형 및 필요성 인식차이.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연화 (2014). 유아교사의 행복감과 교사-유아 상호작용 관계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주혜 (2008). 공립유치원 교사의 직무수행 어려움과 소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성애, 이규남, 박유영, 이규림, 천현미 (2006). 유아의 프로젝트 스펙트럼 활동 특성과 다중지능 및 유치원 적응력과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회, 46, 93-116.**
- 차정주, 이효림 (2015). 유아교사의 소진과 정서노동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20(2), 375-393.**
- 차지연 (2013). 보육교사의 감정표현불능증, 소진, 성인애착이 유아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천향숙 (2010). 교사와 유아가 지각하는 교사-유아 관계 및 관련변인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채경화 (2013). 교사-유아의 상호작용과 유아의 놀이성 및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도간의 관계.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선경 (2011).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선희 (2009). 교사 유아 간 상호작용과 유아 부적응 행동 간의 관계.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선희, 황혜정 (2011). 교사-유아 간 상호작용과 유아 부적응행동 간의 관계. **어린이미디어연구, 10(3), 1-18.**
- 최윤이, 심숙영 (1999). 근무환경에 따른 유아교육 교사의 소진 정도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9, 133-148.**
- 한광현 (2005). 교사의 소진원인과 결과 간 관계 및 사회적지원의 조절효과. **경영교육연구, 38, 355-379.**
- 황해익, 탁정화, 홍성희 (2013). 유치원 교사의 회복탄력성, 교사효능감 및 직무만족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7(3), 411-432.**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etin*, 95(3), 542-575.
- Endsley, R. C., & Brabard, M. R. (1981). *Quality daycar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Jewsuwan, R., Luster, T., & Kostelnik, M. (1993). The relation between parents' perceptions of temperament and children's adjustment to preschool.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8(1), 33-51.
- Kontos, S., & Wikox-Herzog, A. (1997). Influences on children's competence in early childhood classroom.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2(3), 247-262.
- Ladd, G. W. (1990). Having friends, keeping friends, making friends, and being liked by peers in classroom predictors of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1(4), 1081-1100.
- Lamb, M. E. (2012). Mothers, fathers, families, and circumstances: Factors affecting children's adjustment.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16(2), 98-111.
- Maslach, C., & Jackson, S. E. (1981). The measurement of experienced burnout. *Journal of Occupational Behavior*, 2(2), 99-113.
- Noble, K., & Macfarlane, K. (2005). Romance or reality?: Examine burnout in early childhood teachers. *Australi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30(3), 53-58.

논문투고 : 16.04.15  
수정원고접수 : 16.06.02  
최종게재결정 : 16.06.09